

새로 개업한 식당배 《대동강》호를 타고



봄-경쾌하게 배고동소리를 울리며 한척의 배가 서서히 잔교를 출발한다.

배에 탄 사람들은 물론 기슭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손을 흔들며 화답한다.

지난 4월말 식당운영을 전용으로 하는 식당배 《대동강》호가 새로 개업하였다. 인민봉사총국 국장 김윤택은 배가 건조된 경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버지장군의 생전의 뜻을 받드시어 식당운영을 전용하도록 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조선반도정세가 극도로 긴장했던 그때에 새로 건조하고있는 《대동강》호를 돌아보시었으며 그후에도 배의 관리운영체제와 인민들에게 봉사할 로리, 청량음료의 가지수, 설비와 원자재보장대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며 깊은 관심을 표시하시었습니다.

새로 건조된 식당배 《대동강》호는 외부와 내부가 현대적미감에 맞게 훌륭하게 꾸려져 사람들의 호평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배안에는 한꺼번에 3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수 있는 8개의 식사실과 1, 2층 선미와 2층 선수에 야외식사실 그리고 연회장, 상점 등이 갖추어져있다.

1층홀과 2층홀을 련결하는 라선식계단과 강물결을 련상케 하는 식사실안의 벽장식과 천정장식, 독특한 무리등장식, 주변풍치를 부감할수 있게 시원하게 낸 창문들, 여러가지 형태의 식탁들과 의자들...

어느것이나 건축미학적으로 손색이 없게 품을 들여 설계하고 꾸렀다는것이 알린다.

식당배 《대동강》호는 하루에 두번 기슭을 떠나 옥류교와 대동교사이를 오간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평양시풍경을 부감하며 식사도 하고 유람도 하는 멋이란 그 예대 비길수 없다.

그데서인지 외국인들도 배에 많이 오른다고 《대동강》호의 집대원인 조옥희 녀성은 말한다.

개업한지 얼마 안되는 식당배 《대동강》호가 공화국 인민들은 물론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곳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박금일



*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아서 *

공화국의 녀성들이 친정집이라고 정을 담아부르는 평양산원에 새로 일떠선 유선종양연구소. 공기차 단막을 형성한 출입문을 지나 홀에 들어서니 감안이 연방 터져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우리는 리청원소장의 안내로 그흔하게 갖추어진 현대적인 의료실비들을 돌아보았다.

다목적렌트겐이며 CT설비, 유선촬영기와 유관내시경이며 유선조직절제기들 그리고 초음파진단설비며 심전도설비는 물론 수술도구 일식과 최신형마취기를 비롯한 훌륭한 의료실비들이 다 갖추어져있었다.

외부와 3층으로 격폐되고 무균화가 실현된 수술실이며 수술후 치료를 받는 집중치료실은 또 얼마나 훌륭한가.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국에 왔던 해외동포녀성들은 여기를 돌아보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한다. 그들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훌륭한 치료조건과 환경을 갖춘 병원의 하루 입원비만 해도 3 000~6 000US\$라고, 그런데 조국에서는 돈 한푼 안내고 누구나 치료받을수 있다니 얼마나 큰 혜택인가고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들은 감상목에 녀성들을 위하여 이토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감사의 큰절을 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기자야 만난 1과장 조일봉 선생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보았는데 평범한 녀성들을 위해 이렇듯 훌륭한 치료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나라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적십자국제위원회 대 표단의 한 성원으로 공화국을 방문한 프랑스의사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돌아보고서 현대적인 진단설비들이 그흔히 갖추어져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처럼 화려한 곳에서 최상의 의료봉사를 받고있는 조선의 녀성들이 정말 부럽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곳을 찾았던 일본의 어느 한 대표단은 호텔처럼 꾸러진 입원실에서 액정TV를 보며 치료의 여가간을 보내는 환자들을 보고 자기 나라에서는 평범한 녀성들이 돈 한푼 안내고 이렇듯 훌륭한 환경에서 치료받는다 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다고 하면서 TV를 켜려고 해도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의료실비들도 그흔하였지만 유선절제의 예방과 치료 및 과학연구를 위한 력량도 나무랄데 없었다.

학위 학직 소유자들과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박사원과정들만 30~40대의 경쟁한 실력가들이 의사와 연구사진영의 주력을 이루고있다.

기자는 연구소의 고려치료과에도 들러보았다. 김은주선생이 친절하게 맞이하였다. 그는 우리들에게 고려의학



적으로 유선종양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것이였다. 우리의 고유한 고려치료방법으로 치료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한 환자의례를 들었다.

《합격복도 라선시 청계동에서 사는 김명옥녀성이 암으로 의심되어 올라왔는데

복받은 우리 녀성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돌아보시면서 유선종양 유선암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적발하여 치료해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따라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부인과검진을 진행하고 유선질환을 비롯한 부인병들을 조기적발하여 치료해 줄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었다.

돌이켜보면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1952년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진원회의에서 다음해 1월 1일부터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결정이 공포된 때로부터 지난 60여년간 우리 인민들은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일상적으로 받아왔다.

우리 녀성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한 보건의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다. 평양산원을 비롯하여 나라의 곳곳에 세워진 산원들에서 해산으로부터 부인병에 이르기까지 온갖 치료를 다 받고있다.

그런데 우리 녀성들이 오 늘은 또 이런 복을 받아안게 되었다.

우리 월향동에 사는 녀성들도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서 빠짐없이 검진을 받고 조짐이라도 병조가 있는 녀성들에게는 치료대책이 취해졌다. 정말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의제는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제도이다.

훌륭히 꾸러진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서 정상적인 검진을 받고 그에 따르는 치료까지 받는 우리 녀성들은 부강조국건설에 힘껏 이바지할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월향동 사무소 황경숙

병진로선을 받들고 각지에서 혁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들고 각지에서 생산전야의 열풍이 세차게 불고있다.

자랑찬 승리의 첫 포성은 천리마제 강련합기업소에서 울려다녔다.

이 기업소에서는 전후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때 1만명의 강재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예측적호소를 받들고 6만능력의 분과업인기에서 12만대의 강편을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여 세상사람들을 놀래켰었다.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 걸음, 백걸음 달리는 천리마의 정신이 처음으로 창조된 이 기업소에서 오늘날은 새로운 병진로선을 받들고 대조선교립압살채동에 피눈이 되어 날리는 미국과 주중세력의 머위우에 철추를 안기는 심정으로 증산운동을 세차게 벌리었다. 강철직장을 합쳐 초고전력전기로의 제강시간을 종전에 비해 2시간이나 단축하고 연속조리기에서 연속 3차지의 쇠물밖에 투입하지 못하던 기성관념을 깨뜨리고 연속 5차지의 쇠물을 투입하는 새로운 기록을 창조함으로써 같은 조건에서 강철생산량을 훨씬 늘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압연부분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새로 준공한 무연탄가스와의 대형압연가열로의 정상운동을 보장하면서 전반적인 압연공정에서 생산을 늘인으로써 맡겨진 압연강재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4월 10일까지 1.4분기 강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새로운 강재증산과제를 기한전에 앞당겨 끝내는 로력적위준을 떨치

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8배에 달하는 생산실적을 기록한 이 성과는 새로운 병진로선전야의 열풍이 세차게 불고있다.

증산의 불길은 북방의 대유색금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자재보장과 설비관리, 기술관리,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힘을 넣음으로써 지난 4월 20일현재 상반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단위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회천발전소 2단계공사인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지난해 4월 준공을 선포한 최2호발전소아래로 청천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전개된 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는 지금 기본건설대상들의 기초굴착공사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언제 건설을 위한 굴착작업이 힘있게 다그쳐지고 발전기설과 취수구조물굴착작업은 50%계

선에서 진행되고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와 천내지구관련합기업소, 원산군민발전소를 비롯한 인민경제 선형부문과 기초공업 부문에서는 경제강국건설의 최후병, 개척자답게 승리의 물과구를 열어나가고있다.

공화국에서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으로 내세우는 농업과 경공업발전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 공화국창건 65돐,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할 목표를 제기하고 당면한 봄철영농사업을 짜고들어 내밀고있다. 대규모축산기지로 변모되는 세포동판에서는 기계화수단들에 의한 등관개간을 진행하고 방목법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한달동안에 수백만여그루의 나무모를 심었다.

경공업부문에서도 각지의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높이 추켜들고 과학기술과 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기술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이 전군중적운동으로 벌어지고있는 것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경제건설에서는 날에날마다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지금 미국은 핵무기를 틀어쥔 공화국이 경제적부흥을 이룩하는것을 제일 두려워하고있으며 이를 한사코 막아보려고 《제재》에 핵전쟁 연습이요 하면서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얼마전 평양을 방문하였던 한 재미동포가 토로한바와 같이 다른 나라같으면 이런 역경앞에 얼백년도 무너져앉지 않거야 항복하고말았을것이다.

그러나 공화국은 세계 《유일초대국》이라 자처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제재》에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으로 맞서고있으며 그 좋은 현실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본사기자



새로운 병진로선을 받들고 철강재생산을 늘이고있다. -천리마제 강련합기업소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곳에선

